

전북대생들, 협력기업 수출 물꼬 트다

GTEP사업단 무역박람회서 350만 달러 수출 상담실적 올려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최근 2개의 해외 무역전시회에 참가해 35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

사업단은 지난달 20일~24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2017 타이페이 한류상품박람회에 김영범·유동연(무역학과 3학년) 학생을 파견해 협력업체인 (주)다인스와 수출 상담을 진행해 3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특히 타이페이에 소재한 두 개 기업(Ming Jui Co.Ltd, Forum Youth Universal)과 문구팬시 판매채널의 입점과 뷰티시장의 대리점 계약 체결 등이 논의 중이어서 향후 다인스 제품의 대만 수출 전망이 매우 밝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타이페이에서 같은 기간에 개최된 '2017대만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김연주·박상은(무역학과 3학년) 학생이 파견돼 협력업체인 고려자연식품(주)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만의 Gent Foods(주)와 유자차 등 기존 거래식품을 비롯해 신규 개발품목인 아로니아액상차 등 6개 품목 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김연주 학생은 "식품 수출의 경우 다른 국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수출지원을 통해 많은 상담과 계약을 얻어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호 사업단장은 "해외박람회 기간 중 시장 반응 점검만 해도 성과인데 현장에서 즉시 수출 계약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 학생들이 최근 2개의 해외 무역전시회에 참가해 35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

까지 이뤄져 협력업체에 큰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수출 현장을 경험하며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 명품 복숭아 축제 27일부터 사흘간 개최

전주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복숭아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전주명품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와 전주농업협동조합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명품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복숭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제19회 전주명품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

'복숭아! 새로운 문화축제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주 복숭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생산농가의 자긍심 고취와 소득 향상을 위한 직거래장터와 다양한 문화공연이 마련된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전주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품종과 크기, 당도 등을 규격에 맞게 공중 선별한 전주 명품

복숭아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전주 복숭아의 참맛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는 복숭아의 첫 재배 지역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라며 "이번 전주명품 복숭아 축제는 19회째를 맞이해 전주 복숭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 관광객, 지역농가가 함께 소통하는 문화관광축제로 기획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9회 전주명품 복숭아 축제의 캐릭터 공모전 및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검색어:복숭아)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6714)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여름 휴가철,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계약 피해 잇따라

소비자원, 환불 거부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 자율적 개선 촉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모바일 숙박예약이 늘고 있지만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생한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피해 501건 중 구제된 8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포시.광고' 관련 각 2건(2.3%)이 뒤를 이었다.

특히 89건 중 29건(33.3%)은 이용자의 착오나 실수로 잘못 계약된 후 1

시간 이내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 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했음은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해당 숙박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 아놀자, 여기어때, 호텔앤조이) 4곳을 중심으로 환불불가 조건의 상품비율을 확인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아놀자' 모델, 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 모델의 10%, '호텔앤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또한, 4곳 모두가 환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구매한 17건(19.5%)은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미이행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예약취소의 책임(만실, 중복예약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환불을 거부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원의 요구에 따라 환불불가 조건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숙박예약 시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활용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여성농업인 경쟁력향상 리더십 교육 실시

전북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19일과 20일 농협변산수원원에서 여성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자기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농업인 경쟁력향상 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리더십 교육은 전북 농가주부모임 임원 및 회원들이 중심이 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꾀하고 지역

의 여성복지 담당자들과 긴밀한 관계유지도 농업인 실익중심의 여성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생의 자리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김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신성식씨의 영농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박근아 아나운서의 '나만의 언어로 당당하게 삶을 대하라'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인재용 기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시장 탄소산업 홍보 나서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전주에서 생산된 탄소섬유 차량소재 자동차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기술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엑스포'에 참가해 국내 탄소섬유의 연구 성과를 홍보한다.

'차세대 자동차 기술혁신을 말한다

리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 전시회는 전자제어기술과 시험평가, 센서, 전기자동차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400여 부스와 7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신기술 자동차 박람회이다.

기술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탄소산업 인프라, 경량복합재 제조기술과 재직자교육과정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생진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인증 획득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기술거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하며, 2001년에 4개 기관의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추가 지정을 통해 기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생진원은 기술거래사 4명, 기술평가사 6명, 기술경영사 1명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통해 자체 개발 기술과 유망 기술 또는 필요 기술을 도내 기업체에 소개하고 이를 이전시키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 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 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고, 지정된 기관

은 국가기술은행(NTB),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도외의 우수한 기술을 도내 수요자에게 소개하며, 다양한 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진원은 도내 연구개발특구의 기관 및 조직에서 보유한 식품 등 농생명 관련 기술을 도내 기업체로 이전시킬 수 있는 중진자 역할을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구 성과물이 도내 기업에게 보다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수 원장은 "기술거래기관 지정으로 기술 개발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소개하고 거래하는 영역까지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